

INEX Market Insight (25.12)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 B2B 금융 인프라로의 진화

Editor: 김규태 tony@inexkr.com

Analyst: 김종현 kiri@inexkr.com

Summary

- 유틸리티 증명 (Proof of Utility) : 비트코인 ETF가 자산의 가치를 입증했다면, 2025년을 기점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의 비효율(고비용-지연 정산)을 해결하며 실질적 유틸리티 단계로 진입.
- 비용 구조 혁신 :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EIP-4844)에 따른 L2(Base 등)의 비용 절감과 솔라나와 같은 고성능 L1의 확산으로 전송 수수료가 획기적으로 낮아짐. 이를 통해 결제 및 기업 간 대량 정산의 실질적 경제성 확보.
- 결제 모델 분화 : 온체인과 오프체인 형태가 거래 목적과 시장 특성에 따라 병존.
- Web 2.5 전략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 접점은 유지하되, 백엔드 정산을 블록체인화하는 전략을 통해 도입 저항 최소화.

Key Issue

인엑스(INEX)가 주목하는 시장의 전환점 — 결제는 습관, 정산은 기술

2024년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투자 가치를 증명한 해였다면, 2025년 이후의 디지털자산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효용 가치(Utility)의 증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현금 흐름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투기의 대상을 넘어, 기존 레거시 금융망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혁신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소비자의 결제 습관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경험 뒤에 숨겨진 정산 과정을 혁신하는 'Web 2.5' 전략이다. Stripe와 PayPal, Visa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백엔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정산 속도를 실시간으로 단축하고, 국경 간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경쟁자가 아닌 기존 금융 인프라의 보완재로서 최적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시장에서의 승부처 역시 가맹점 정산 인프라의 선점에 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은 국내 환경상, 기존 VAN/PG 망과 연동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을 기업의 장부에 즉시 꽂아줄 수 있는 B2B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화려한 프론트엔드보다 안정적인 컴플라이언스와 정산 기술을 갖춘 미들웨어 기업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1 시장 주요 이벤트

INEX 소식

이재강 인엑스 대표 "가상자산 시장, B2B 결제 인프라로 2막 열 것" [\(전문\)](#)

인엑스, 한국결제네트웍스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PoC 완료 [\(전문\)](#)

글로벌

모건스탠리, 비트코인·솔라나 ETF 신청...디지털자산 확대 시동 [\(전문\)](#)

비자 크립토 카드 사용량 525% 경증...암호화폐 결제 가속 [\(전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테크 연합군' 먼저 허용 [\(전문\)](#)

내년 STO 시장 본격화... 5년 내 360조 규모로 '훅찍' [\(전문\)](#)

디지털 자산

에테나, 주피터와 손잡고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코인 'JupUSD' 출시 [\(전문\)](#)

Lighter, LIT 토큰 출시 앞두고 코드·회로 아키텍처 전격 공개..DeFi 투명성 경쟁 불지핀다 [\(전문\)](#)

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임박...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회사로 두나? [\(전문\)](#)

미국 암호화폐 규제법, 트럼프 조항 쟁점에 2027년으로 연기 전망 [\(전문\)](#)

Upcoming 주요 일정

일자	관련 자산	이벤트 내용
2026-01-09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
2026-01-14	BNB	Fermi 하드포크
2026-01-18	ONDO	토큰 대규모 정기 락업 해제 (Token Unlock)
2026-01-23	TRX	TRX 현물 ETF 승인 최종 마감일 발표
2026-01-28	-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2 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자산의 증명'을 넘어 '유틸리티의 증명'으로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산 클래스로 편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기관 자금의 유입과 규제 친화적 상품 구조는 "비트코인은 이제 투자 가능한 자산이다"라는 시장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2025년 말 현재, 시장의 질문은 더 이상 보유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 관심의 축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실제 경제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즉 유틸리티의 증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거시 환경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수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과 가맹점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매출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속도와 확실성이 되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유입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면, 그 공백은 곧 운영자본 부담과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자금 회전이 빠른 유통서비스 업종이나 중소·중견 기업일수록 "언제 돈이 들어오는가"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을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된다.

기존 레거시 금융 인프라는 구조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신용카드 결제는 통상적으로 D+2~3일의 정산 지연을 수반하며,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실제 현금 유입 시점은 더 늦어진다. 국제 결제의 경우 다단계 중개 구조로 인해 시간, 수수료, 환율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거래 비중이 높거나 마진이 낮은 업종에서 상시적인 비효율로 작용해 왔으며,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그 부담이 더욱 확대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정산 구조에 근본적으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24/7로 작동하며, 기술적으로 즉시 정산이 가능하다. 결제와 동시에 자금의 귀속이 확정되며, 중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산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자금 회전율을 개선하고 운영자본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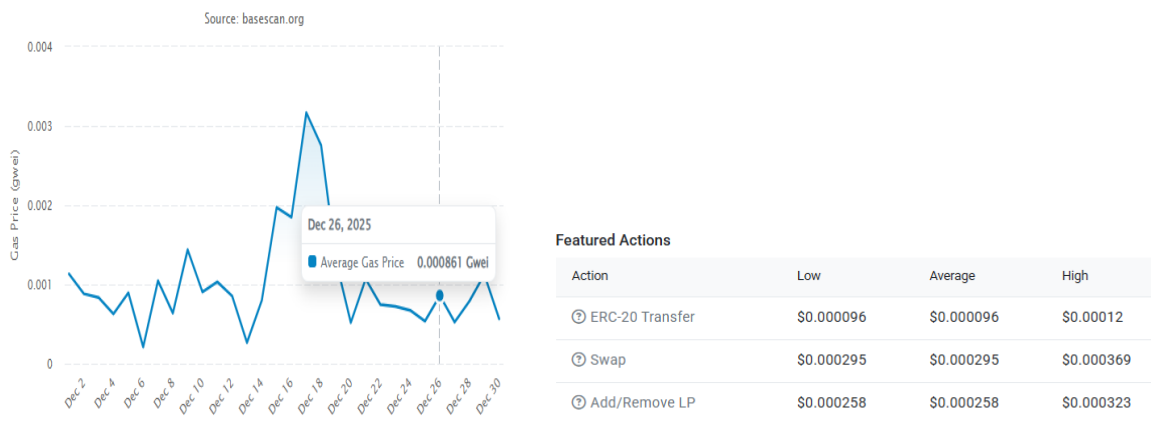


Figure 1. Base 네트워크 가스비 및 실제 전송 비용 (Source: basescan (2025.12.29))

더 중요한 변화는 비용 구조의 전환이다. 과거 블록체인 결제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던 가스비는, 고성능 네트워크의 성숙과 함께 급격히 낮아졌다. 솔라나(Solana), 베이스(Base)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서는 평균 거래 수수료가 \$0.01 미만 수준으로 안정화되며, 소액 결제와 대량 정산에서도 경제성이 확보되기 시작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고액 송금이나 특정 니치 시장에 한정된 수단이 아니라, 일상적 결제와 B2B 정산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At Coinbase, we are excited about the Surge because we believe that reduced onchain transaction fees and increased throughpu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ate of adoption of the cryptoeconomy and help build the bridge to web3. As a reminder, when users interact with a blockchain like Ethereum, they pay "gas fees" to the Ethereum network for the computational cost of the onchain activity. Even with Ethereum gas fees [near](#) recent lows, fees are still too high (\$1-10 per transaction). And as we saw last year, when crypto usage surges, these fees can increase by multiple orders of magnitude (\$10-100 per transaction), making onchain activity inaccessible for users. Our priority is to bring our over 100 million existing customers *and* the rest of the world into the cryptoeconomy, and we must make it cheap and easy for them to use crypto at scale.

Enter [EIP-4844](#): an upgrade to the Ethereum network that will reduce the cost of layer 2 rollups by 10-100x and shepherd in a new era of low cost onchain activity. EIP-4844 works by introducing a new transaction type to Ethereum that accepts ephemeral "blobs" of data. This new blob data storage is purpose built for storing rollup data and enables us to create a new, lower cost fee market. With this change in place, we expect fees on layer 2 rollups to decrease by 10-100x. The upgrade also takes us one step closer to [full sharding](#) (another 10-100x cost reduction!) and ensures that the new data storage requirements are manageable for stakers.

Figure 2. 코인베이스의 EIP-4844 지원 (Source: [Coinbase Official Blog](#))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덴컨 업그레이드의 핵심인 'Blob' 지원을 통해 L2 수수료를 1/1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기술적 목표를 제시함"

특히 코인베이스의 Base 체인은 이더리움 덴컨 업그레이드(EIP-4844) 이후 '블롭(Blob)'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 구조를 혁신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실제 Base의 전송 수수료는 약 \$0.000096 으로 측정된다. (위 Figure 1 참조) 이는 기존 금융망 대비 건당 처리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하는 효과로, 기업 간 대량 정산영역에서 뚜렷한 경제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결제 구조의 2대 모델 (온체인 개방형 vs 오프체인 폐쇄형)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은 단일한 방식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정산 방식과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 두 가지 결제 구조로 분화되고 있다. 하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 자금 이동과 정산이 발생하는 온체인 개방형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거래소 또는 슈퍼앱 내부 장부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모델이다. 중요한 것은 모델 간 우열이 아니라, 거래 유형과 적용 시장에 따라 적합한 정산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온체인 개방형 : "검증 가능한 신뢰"

온체인 개방형 모델은 결제와 동시에 블록체인 상에서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 구조다. 사용자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메타마스크와 같은 외부 개인 지갑을 포함한 다양한 지갑에서 결제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 내역은 온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투명성, 추적, 감사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규제 준수와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북미유럽 시장, 그리고 B2B 정산이나 고액 거래에 특히 적합하다. 최근에는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USDC, USDT 등)을 사용하되, 가맹점은 법정통화로 자동 정산 받는 방식이 일반화되며 변동성 리스크 또한 최소화되고 있다. 즉, 사용자 경험은 가상자산 기반이지만, 가맹점의 회계, 재무 처리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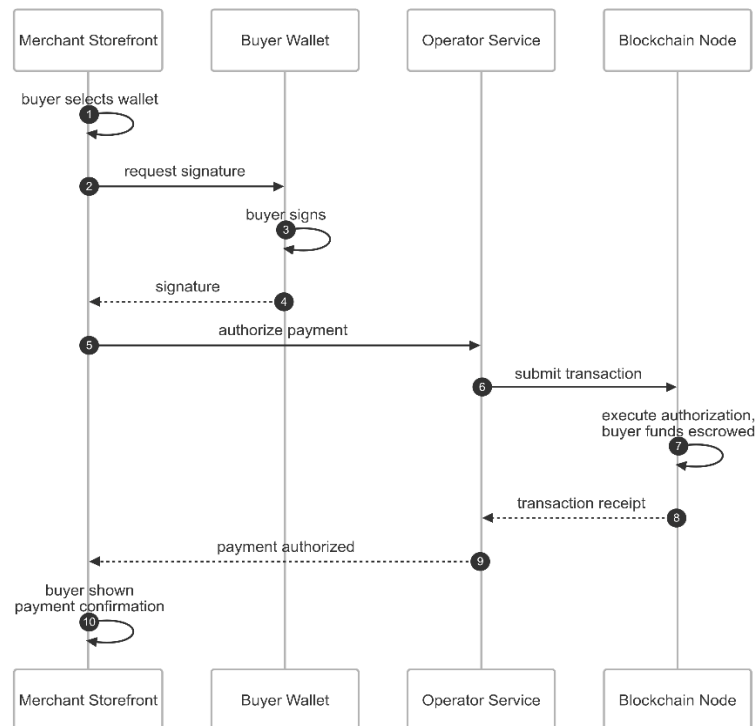


Figure 3 온체인 결제 프로토콜 작동 원리 (Source: "Shopify Engineering, 'Commerce Payments Protocol'")

Figure 3은 온체인 개방형 모델이 결제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 가능한 신뢰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지 보여준다. 결제 프로세스는 가맹점 화면에서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결제 승인 권한은 구매자 지갑(Buyer Wallet)에 있다. 사용자가 결제에 사용할 지갑을 선택하면(①), 가맹점은 해당 지갑에 서명 요청(Request Signature)을 보내고(②), 구매자는 자신의 개인 키를 통해 서명을 생성하여 결제 의사를 확정한다(③). 이 서명(Signature)은 단순한 본인 인증을 넘어, "이 거래를 승인한다"는 위변조 불가능한 암호학적 증빙이 된다.

이후 운영 서비스(Operator Service)는 이 서명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온체인 정산을 실행한다. 서명된 결제 요청은 블록체인 노드(Blockchain Node)에 트랜잭션 형태로 제출되며(⑥),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에 따라 결제를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에스스로 및 승인 절차가 코드에 의해 자동 수행되고(⑦), 그 결과가 트랜잭션 영수증(Receipt)으로 반환된다(⑧).

결과적으로 가맹점은 중개사의 통보가 아닌, 블록체인상의 확정된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를 완료한다(㉔~㉖). 이는 결제의 핵심 증거(서명값, Tx Hash)가 온체인에 영구 기록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사후 감사와 B2B 정산에서의 신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오프체인 폐쇄형 : "결제 편의성"

오프체인 폐쇄형 모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직접 거치지 않고, 플랫폼 내부 장부상에서 결제가 즉시 완료되는 구조다.페이팔이나 은행 전산망과 기술적으로 유사하게, 거래소나 슈퍼앱 내에서 숫자만 이동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컨펌 대기 시간과 가스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즉시성, 편의성, 비용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대규모 사용자 풀을 이미 확보한 플랫폼에 유리하며, 소액, 일상 결제에 강점을 가진다. 다만 결제와 정산이 특정 생태계 내부에 종속되는 만큼, 외부 확장성이나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은 제한적이다. 즉, 효율성은 극대화되지만 닫힌 생태계라는 구조적 전제를 동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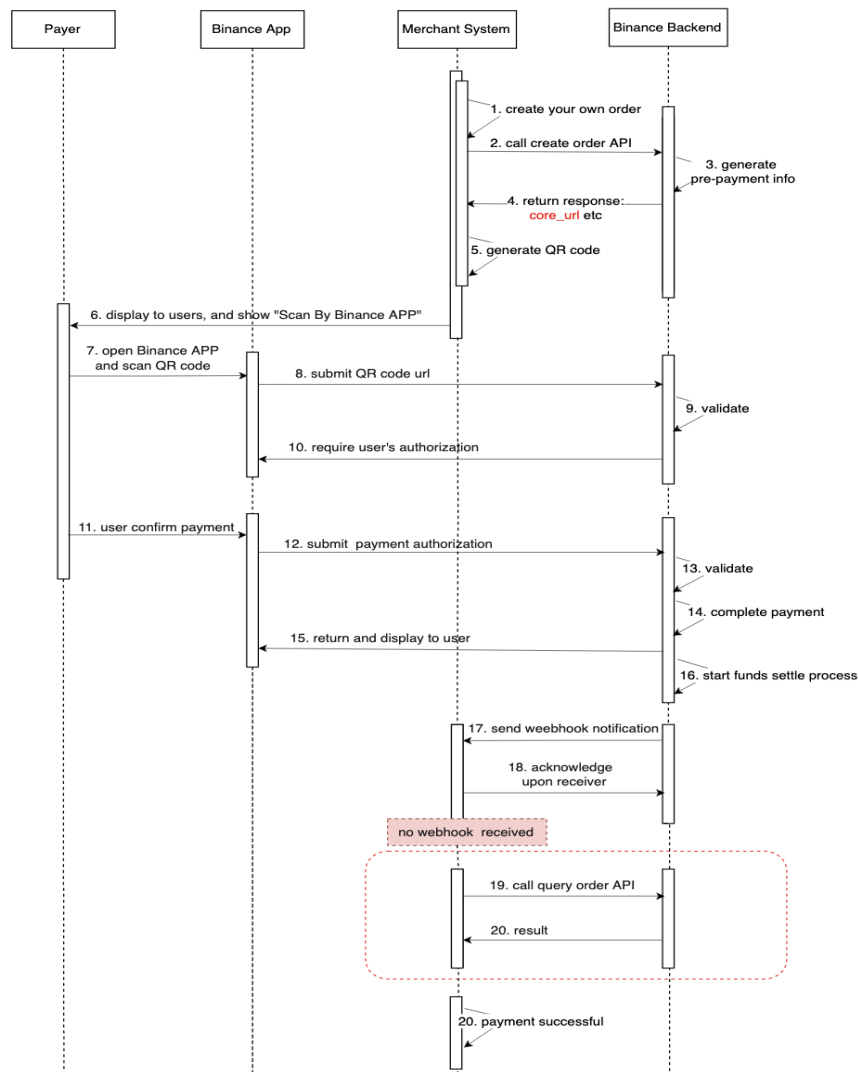


Figure 4. 오프체인 결제 - 바이낸스 페이(Binance Pay) 결제 시퀀스 (Source: "What is the Binance Pay")

Figure 4는 오프체인 모델이 블록체인 검증 없이 어떻게 즉시 결제와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는지 보여준다. 이 과정의 핵심은 블록체인 노드가 아닌 API 기반의 상호 통신에 있다.

결제는 가맹점 시스템(Merchant System)이 바이낸스 백엔드에 주문을 생성(Create Order)하고 QR코드를 발급받으며 시작된다(①~⑥). 사용자가 앱으로 QR을 스캔하고 결제를 승인하면(⑦~⑩), 바이낸스 백엔드는 즉시 내부 장부에서 자금을 이동시키고 정산 프로세스(Start funds settle process)를 완료한다(⑪). 이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 트랜잭션 없이 서버 간 통신으로 사실상 즉시 결제가 완료되는 구조다.

특히 오프체인 결제의 안정성은 '이중 검증(Double Validation)' 메커니즘에서 나온다. 바이낸스 서버는 결제 완료 후 가맹점 서버에 웹훅(Webhook) 알림을 보내는데(⑬), 네트워크 불안정 등으로 이 신호가 누락될 수 있다. 이때 다이어그램 하단의 붉은색 점선 영역이 작동한다. 가맹점 시스템은 웹훅 수신에 실패하더라도(No webhook received), 주문 조회 API(Query Order API)를 호출하여(⑭) 결제 결과를 최종 확인한다(⑮).

즉, 온체인 모델이 '암호학적 서명'으로 신뢰를 검증한다면, 오프체인 모델은 API 통신과 상호 조화를 통해 신뢰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가스비 0원과 실시간 처리를 구현하면서도,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정산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Table 1. 결제 방식 비교 : 온체인(On-chain) vs 오프체인(Off-chain)

비교 항목	온체인 개방형	오프체인 폐쇄형
대표 사례	Coinbase Commerce	Binance Pay
자금 이동	실제 전송 (지갑 ↔ 지갑)	앱 안에서 계정 간 이체
가맹점 인증 (Merchant)	필수 (KYB)	필수 (KYB)
사용자 인증 (User)	플랫폼 차원의 사용자 KYC 없음 (지갑 서명 기반)	필수 (Mandatory)
사용자 범위	비회원 가능	앱 사용자만 (바이낸스 가입 필수)
결제 속도	블록 컨펌 대기 (수 초 ~ 수 분)	즉시 완료 (Real-time)
비용	가스비 발생	수수료 (플랫폼 정책 기반)
승인 방식	지갑 서명 + 온체인 트랜잭션 검증	앱 내 인증 + 내부 장부 승인
장점	개방성, 감사 가능성, B2B·고액 거래 적합	UX 우수, 소액일상 결제 적합
한계	자금 출처 소명 책임은 가맹점에 있음	폐쇄형 생태계, 외부 확장성 제한

coinbase HELP

COMMERCE

Merchant guidelines for Coinbase Managed Commerce applic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and efficiently complete your application for Coinbase Commerce, please have the following information ready before you begin your application.

General information

- Your legal entity type, the exact legal entity name as registered, and (optional) the name you use to do business if it's different from the legal entity name
- Street address where your business is conducted (PO boxes not accepted)
- Incorporation information (date of incorporation, country, state, etc.)
- Your business' industry type
- Purpose of Account - Select 'Accepting Crypto Payments for Goods / Services'
- Financial information such as monthly revenue, assets under management, source of funds, expected percentage of crypto payments, etc.
- Other business-related questions
 - In order to understand your business and how it's operated, we ask about ownership, whether the company is publicly traded, where your payers are located, what products or services you provide, etc.

Depending on the answers you provide, you may be asked more specific, business-related questions.

Merchant Application

Follow the steps below to start using Binance Pay to receive payments. You can return anytime to continue.

- 1 Fill in the merchant application information** Approved
 - Select business solution
 - Select merchant type
 - Fill in your business information
 - Complete Entity (KYB) Verification
- 2 Sign the contract** Pending signature
 - Merchant contract can only be signed after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by our team.
 - Only user with a business owner role can have the access to review and sign the contract.
 - It would be available here for your review and signing.
 - If you agree with the contract terms, we will activate and commence all Binance Pay services for you according to the contract.
 - If there are terms that your business need to disagree upon due to legal or compliance reasons, choose to negotiate upon reviewing the contract.
 - Failure to sign the contract by 4 July 2022 may result in some limitations to your merchant services.

Review and Sign Contract

Figure 5. 가맹점 신청(KYB) 예시 (좌: Coinbase Commerce, 우: Binance Pay)

레거시/핀테크의 합류: “결제사도 스테이블코인을 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본격적인 산업 논의로 진입한 배경에는, 글로벌 결제사와 핀테크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시하기보다, 기존 결제 경험을 유지한 채 정산 레이어를 현대화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접근의 핵심은 명확하다. 소비자와 가맹점이 이미 익숙한 카드나 QR 결제 흐름은 그대로 두고, 결제 승인 이후 발생하는 자금 이동과 정산 과정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결제 UX 변경에 따른 도입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금융망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산 지연과 고비용 구조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결국 레거시 인프라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경쟁 수단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기술에 가깝다. 고객 접점에서는 기존 카드 네트워크의 강점을 유지하되, 보이지 않는 백엔드의 자금 이동 경로는 기존 은행망에서 블록체인 레일로 교체하는 이른바 'Web 2.5' 전략이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Table 2. 주요 핀테크/금융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현황

기업	도입 전략	핵심 가치
Stripe	Stablecoin 기반 글로벌 결제/정산 도입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즉시 USD로 정산
PayPal	PYUSD (자체 스테이블코인)	내부 생태계 유동성 효율화 및 수수료 절감
Visa	Solana 기반 정산	카드 승인 이후 기관 간 정산 속도 개선 및 24/7 가동성 검증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해야 하는 4가지 이유

기업과 가맹점 입장에서 결제 수단의 추가는 곧 운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단순한 결제 옵션의 확장이 아니라, 재무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혁신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이다.

1. 현금 흐름의 최적화 (Cash Flow Optimization)

2026년 불확실한 글로벌 통화 정책 환경에서 현금의 시간 가치는 기업 재무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매출 규모와 함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현금이 유입되는지이며, 정산 속도는 기업의 비용 구조와 재무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 기존 신용카드 기반 결제 구조는 이러한 요구에 구조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카드 결제는 통상 D+2~3일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며, 주말·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실제 현금 유입까지의 리드타임은 더 길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출은 발생하지만, 운용 가능한 현금은 묶이게 되어 운영자본 부담과 외부 금융 의존도를 높인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정산 구조는 24/7 가동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또는 당일(T+0) 정산을 기술적으로 구현한다. 결제와 동시에 자금 귀속이 확정되며, 정산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이는 단순한 속도 개선을 넘어 기업의 자금 운용 방식을 변화시킨다. 매출 발생 직후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재고 보충, 비용 집행, 부채 상환 등 자금 재배치가 유연해지고, 운영자본 회전을 개선과 금융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2. 비용 구조의 혁신 (Cost Efficiency)

기업의 수익성 관리에 있어 매출 증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비용 통제, 특히 고정비 성격을 띠는 결제 수수료의 절감이다. 기존 레거시 결제 시스템,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네트워크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에는 카드 발급사, VAN/PG사, 그리고 비자·마스터와 같은 국제 브랜드사의 로열티가 층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상 2~3% 내외에 달하는 이 수수료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유통커머스 기업에게는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구조적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러한 다단계 중개 구조를 직접 전송 구조로 대체하여 비용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여기에는 기술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온체인 모델은 솔라나(Solana)나 베이스(Base)와 같은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수수료(Gas Fee)를 건당 \$0.01 미만으로 낮췄다. 둘째, 오프체인 모델은 거래소나 슈퍼앱의 내부 장부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수수료조차 발생하지 않는 수수료 제로 환경을 구현한다. 이 두 모델 모두 결제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사 매입 수수료와 국제 브랜드 로열티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 결과, 기업은 기존 결제망 대비 전체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3. 국경 없는 매출 확대 (Border-less Commerce)

인바운드 관광객이나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의 효용은 비용 절감을 넘어 매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국제 카드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 환율과 국경이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국제 브랜드사(Visa/Master)의 네트워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 결제나 매입 시점의 환율 스프레드로 인해 약 3~5%에 달하는 보이지 않는 환전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가맹점에게는 정산 금액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단일 통화로서 작동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는 뉴욕에서 서울로 보내는 자금이, 서울 시내에서 보내는 자금과 기술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된다. 즉, 물리적 국경과 환전의 단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본국에서 사용하던 USDC나 USDT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별도의 환전소 방문이나 비싼 수수료 없이 한국 매장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환전 없는 결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고객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환율 변동 리스크 없이 확정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4. 운영 리스크 최소화 (Risk Management)

가맹점 입장에서 매출 발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산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지불 거절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악의적인 결제, 취소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취소되거나 소명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 이는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네트워크상에서 트랜잭션이 승인되는 순간 자금의 소유권 이전이 최종 확정된다. 사후에 일방적으로 결제가 취소되거나 정산이 반복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므로, 가맹점은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절감하고 확정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정산 구조의 단순화는 회계 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결제 승인, 매입, 입금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대조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에서는 결제와 자금 이동이 단일 트랜잭션으로 종결된다. 이는 회계 처리 자동화와 더불어, 명확한 정산 시점과 수수료 구조를 통해 자금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운영 이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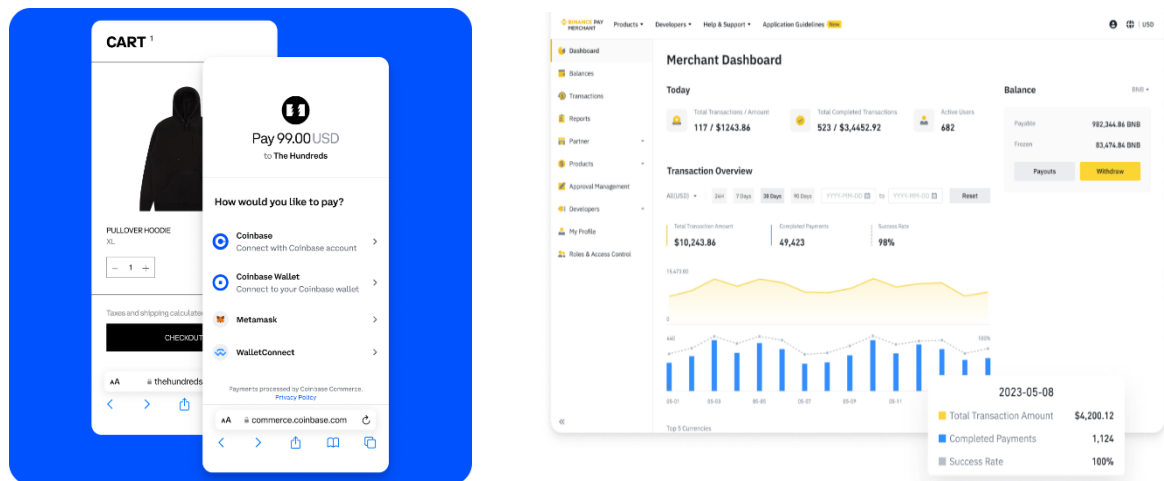


Figure 6. 온체인의 개방형 UX와 오프체인의 관리자 대시보드
(좌) Coinbase Commerce: 결제 화면, (우) Binance Pay: 가맹점 대시보드.

[Outlook] "결제는 습관이고, 정산은 기술이다"

블록체인 산업은 투기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어진 스테이블코인 기반 B2B 결제의 확산은 블록체인이 실물 경제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유틸리티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시장의 질문은 "코인 가격이 오를 것인가?"에서 "이 기술이 기업의 비용을 얼마나 절감해 주는가?"로 이동했다.

2026년 결제 산업 전망: PayFi 시대, '인프라 표준화'의 서막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레거시 금융이 스테이블코인을 탑재하며 보여준 방향성은 명확하다. 2026년 결제 시장의 핵심은 대체가 아닌 최적화다. 소비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카드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기존 결제망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Web 2.5' 전략이 시장의 표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코인을 상장하느냐'가 아니다. "누가 기업의 장부를 더 빠르고(T+0), 더 저렴하게 정산해 줄 수 있느냐"를 선점하는 인프라 기업이 차세대 결제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즉, 자금 이동의 속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용카드 보급률과 핀테크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시장의 전략 역시 다르지 않다. 국내 결제 시장의 승부처는 소비자 접점의 UX 변화가 아니라, 기존 VAN/PG망에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매끄럽게 공급하는 백엔드 레일의 구축에 있다. 다가올 PayFi 시대, 결제 시장의 승자는 화려한 앱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가맹점 연결과 운영 신뢰성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을 잇는 인프라 사업자가 될 것이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60108-Cpi-001호 (2026.1.08. ~ 2027.1.07.)

Contact Us | 문의처

Partnership 및 Listing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Partnership 관련 문의 : partnership@inexkr.com

Listing 관련 문의 : listing@inexcoin.com

Disclaimer | 면책조항

본 자료는 투자자 및 파트너의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수치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개 자료와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나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본 자료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작성자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며, 당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INEX에 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사, 배포, 전재할 수 없습니다.